

12-134 to 12-137: 하나님의 뜻과 책임자

 hdhstudy.com/1963/12-134-to-12-137-%ed%95%98%eb%82%98%eb%8b%98%ec%9d%98-%eb%9c%bb%ea%b3%bc-%ec%b1%

하나님의 뜻과 책임자

1963.01.25 (금), 한국 전본부교회

12-134

하나님의 뜻과 책임자

[말씀 요지]

음력으로도 양력으로도 완전히 한 해가 지나갔다.

축복받은 식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에 대해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루고 항상 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을 책임진 입장에서 활동할 때이다. 그러니 발걸음 하나를 옮길 때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옮겨야 한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어떻게 하면 뜻 대한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며 먹여야 한다.

12-134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실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

이렇게 살면 우리는 개인이지만 전체의 생명, 소원, 가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하늘땅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 혼자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인간과 더불어서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을 찾아 세우시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슬픔과 한을 품은 죽음이었다. 승리의 죽음이 아니라 한을 품은 죽음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다.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 가슴에는 못이 박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실제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토록 슬퍼하신 것은 전체 뿐만 아니라 개체를 위해서였다. 그러기에 전체를 대신한 개체를 찾아 나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는가를 생각하며 이것을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늘의 슬픔과 땅의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한다. 거기에 합당한 깊이와 넓이를 지닌 참다운 효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리에서 맹세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 목적을 이루어 줄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적인 슬픔이 클수록 외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전체의 슬픔을 제거하지 않고는 개인의 슬픔이 제거될 수 없다. 만민을 위하여 주려는 마음이 늘 우러나야 한다. 이것을 알고 맹세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동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원통히 생각하며, 스스로 아버지를 대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만민을 대신한 참효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뜻을 대해 왔지만 일을 얼마나 했는가? 하늘땅의 슬픔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뼈와 살에 사무쳐 있어야 한다. 이런 사상이 내적 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탄을 무찌르는 심판자라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야 한다.

무엇이나 무심코 바라보지 말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사랑하는 만민과 천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남모르는 곳에서 기도라도 하는 성의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만이라도 가져야 한다.

주권자의 입장에 서면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는 고생과 슬픔을 탕감하기 위하여 쓰러지면서 연결해 오던 것을 이제는 실제로써 연결해야 한다.

영적 사탄은 영계에서, 실체적 사탄은 실체세계에서 굴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의 세계까지 건설해야 한다. 십자가는 모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던 것과 같이 모험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공격전이다. 막 내모는 것이다. 천적인 대명을 주어 보내야 한다. 우리의 책임수행 여부에 따라 세계가 좌우된다. 우리가 효자가 되어야 만민도 효자가 된다. 민족과 세계만민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고로 우리의 책임이 크다.

12-136

하늘의 뜻을 위해 필요한 사람

하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쓰러져 갔다. 과거에는 사탄이 양면작전을 하고 하늘이 일면작전을 했으나 이제는 거꾸로 된다. 하늘이 영육 양면작전을 한다. 영계를 대하던 사람들처럼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역사적 실체가 되어야 한다. 축복받은 자는 모험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은 아버지를 위하여 울고 희생해야 한다. 또, 얼마나 그랬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원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혈통을 들고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은 성서의 아무데도 기록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영계가 보류단계에 있는 것은 이 땅위에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인격자가 되려면 하늘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슬픔의 결전장에서 원수를 대하여 싸워 이기겠다는 신념에 차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 원수와 부딪치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것이 인격의 표준이다.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하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하늘의 아들딸이 못 된다. 그런 인격자에 대하여는 참소할 조건이 없다.

예수님이 소원하던 것을 놓고는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격이 필요하다. 역사가 복잡해져 가는 것은 선생님이 나가는 길과 맞추기 위함이다. 4월까지가 중요한 기간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부터는 승리적 주권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선조의 한을 풀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세계와 백성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송 장로를 세운 것은 삼천만을 위한 애국 정신으로 소망 없는 가운데서 미래도 모르고 충성한 것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라도 갖고 가야 한다. 의분심에 불타 올라야 한다. 이제부터 분한 마음을 들게 하면 용서할 수 없다.

그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백성이 없다. 이제는 실체 소망의 세계가 되었다. 망명한 군왕의 심정 이상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공격시대이다. 슬퍼하는 무리는 여러분밖에 없다. 이 나라에 누가 그렇게 되어 줄 사람이 있는가?

12-137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라

아담에게 축복은 했지만 아담은 그것을 갖지 못하였다. 갖고 안 갖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 사탄이 참소하면서 공격해 오던 것같이 우리도 참소하면서 공격해 나가야 한다. 그럴려면 먼저 맞고 먼저 당해야 한다. 육신을 끌고다의 길을 향해 보낸 다음에는 영계를 대신하여 실체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제2차적으로 3년 기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를 위하여 또 나아가야 한다.

만민을 진정으로 굴복시키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 선생님이 무슨 명령을 할지 모른다. 여러분을 축복할 때까지 얼마나 내적인 고통이 많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투전판에서 마지막 장을 뽑는 마음으로 여러

분을 세운 것이다.

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선생님을 고생시킨 자들인 고로 날이 갈수록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선생님은 누가 속마음만 건드려도 폭발한다. 그런데 지금 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골짜기마다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찾아오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심정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완전한 몸으로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바란다. 심정과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심정과 혈통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하다. 부모에게 효도를 못했어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뼈저리게 뉘우치면 속죄의 길이 열린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